<지구촌교회 2025 신년축복 특별새벽기도회 소감문>

분당 6캠퍼스 최유로

많은 누룩보다는 진짜 누룩이 되자. 2025년을 시작하는 신년축복 특별새벽기도회 예배를 드리며 제 마음을 울린 하나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2024년 하반기를 파리에서 홀로 교환학생으로 지냈습니다. 익숙한 부모님도, 친구들도, 교회도, 학교도 없고, 인종과 문화가 다르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믿음을 잊어버린 낯선 땅에서 지내는 시간은 제가 진짜 누룩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제 마음 안의 누룩이 먹을 수 있는 빵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마음 안의 씨앗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성장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수요일에 설교하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박국 2:4) 말씀을 제 삶에 고백하고 적용하면서부터 였습니다. 비록 타지에서 저는 이전에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들을 한 가지도 붙잡을 수 없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다른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께만 의지했습니다. 부모님, 친구들, 환경을 붙잡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가졌다고 생각한 힘도 환경에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자신의 무익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 저는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평안함”이 제 마음에 가득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 속에서 “그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닌 주님의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을 만큼 무익한 인간이지만, 나를 붙잡고 계신, 모든 선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돌아오며 사랑하는 동역자들, 목자들과 목원들에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복음이라는 누룩이 삶 속에서 성장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특별새벽기도회에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잊지 않도록 다시금 기억하고 새길 수 있었고, 사랑하는 공동체와도 함께 더 자세히 전하고 나누고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 2025년은 제가 세상의 압도함과 악함, 나의 무익함과 그리스도인의 적은 숫자, 한탄하게 되는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오직 “그의 믿음”에 소망을 두며 “진짜 누룩”으로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